

남한산성 마을경관의 복원방향에 관한 연구*

김덕삼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A Study on Landscape Restoration of the Namhan-Sansung Village

Kim, Duk-Sam

Divi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base research for the restoration of village landscape of the Namhan-Sansung. The Namhan-Sansung has been recognized as a top destination for dining places.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village landscape and its rich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s transformed into dining places. The village landscape of Namhan-Sansung should be reconstructed as a setting for education and learning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gotten for a long time. The landscape also should be a space where resolute resistance and spirit of Korean people and a futuristic village space where environment 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harmonizes with daily lives. Restoration efforts of village landscape of the Namhan-Sansung can get to start from exploring the prototype of the village. In order to restore the prototype, it is important to review potential elements and setbacks. Based on the prototype of the Namhan-Sansung village, transitions of village landscape were reviewed and directions of restoration were proposed. Also,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problems in system and planning.

Key Words: Village Landscape, Prototype, Improvement Plan

1. 서론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항전지로서, 백제의 하남 위례성과 역사의 맥을 함께 하는 도읍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도권 남부의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자원이기도 하다. 최근에 발표된 송파 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그 이용적 측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은 일부 역사 현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전히 등산이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위락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경원대학교, 1998). 따라서 단순한 휴식공간이나 먹거리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민족의 항쟁사를 탐구하는, 나아

*: 본 연구는 2000년에 경기도로부터 학술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Duk-Sam Kim, Divi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461-701, Korea, Tel.: +82-31-750-5286, E-mail: dskim@kyungwon.ac.kr

가 자연친화적 공동체 환경과 생활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생활공간으로서 남한산성 마을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한산성은 1963년에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1971년에 경기도 공고 제 158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지정후 남한산성 도립공원 개발기본계획(경기도, 1983) 등의 공원계획이 이루어졌으나 마을경관의 총체적인 면이 다루어지기 보다는 문화유적지 주변의 정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마을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학술적 연구로는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¹⁾이 있었으며, 남한산성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원형경관을 파악하며 마을경관복원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연구(경기도, 2000)가 처음이다. 이외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조사(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등의 조사연구가 있다.

남한산성 마을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원형경관을 파악하고 마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향토 경관상을 바탕으로 한 마을경관상의 복원이자 역사환경의 복원의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박찬용과 김한배(2003)는 '산운 마을의 역사문화경관 복원 및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그간의 역사환경 복원이 한정된 지정문화재와 전통 건조물을 대상으로 점적인 복원 정비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한계로 인식하고 면적으로 확장된 전통마을의 전 경관에 대한 복원, 정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남한산성 마을의 경관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 경관을 추론하고 국내 읍성 또는 산성마을 관련 공간 및 경관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마을경관의 복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마을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이론적 연구이기 보다는 보전정비 계획의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적용적, 실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남한산성이 축조되고 마을이 형성된 시기와 관련한 문헌이나 고지도 분석 및 산성내 건물의 축조 연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원형경관을 추적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경관의 복원은 원형경관을 바탕으로 현시적 복원과 정비의 관점에서

서 산성마을의 경관지표가 되는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주요 건축물의 복원, 옛길의 복원과 테마공간의 조성 및 자연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환경의 복원은 전통가옥 중심의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민속과 전통행사, 전통생활 문화 등의 무형의 자원을 비롯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등을 포괄하는 마을 전체의 경관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마을경관 형성의 주요 거점이 되는 중심 건물 및 길과 공간 등의 시설복원 및 정비 위주의 공간구성과 환경설계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성곽지역은 남한산성의 입지 특성상 마을의 중심경관과 직접적인 연계성 낮아 제외하였다.

II.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경관

1. 남한산성 마을의 형성

남한산성은 옛 신라의 주장성으로서 백제 온조왕 13년(B.C 6)에 한산 아래 도읍을 옮긴 곳이며, 광주의 옛 읍치이다. 한남(南漢)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도읍지였던 하남위례성이 온조왕이 낙랑과 말갈의 침입을 피하여 한수 이북에서 한남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이곳이 곧 한수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불리지게 된 것이다. 이후 고구려, 신라에 영토를 빼앗기면서 한산에서 신흥주, 신천정, 남천정, 한산주, 남한산주, 한주 등으로 개칭되었다.

신라 문무왕 때에는 성을 축조하여 주장성이라 불렀으며, 이후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광주로 고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의해 태조 4년(1395년)에 경기좌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광주목으로의 발전은 남한산성의 수축으로부터 비롯된다.

남한산성의 수축이 대두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시 도성이 쉽게 함락됨에 따라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산성 축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선 옛 성을 수축하는데서 부터 출발된다. 선조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피난처로서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남한산성의 형세와 성터·우물 그리고 수축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본격적인 수축은 인조 초기(1624~1626년)이다. 인조 5년(1627년)에는 광주부의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기고 산성주민을

확보할 목적으로 광주 관내의 백성은 물론 타 읍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모민입거(募民入居)하였으며, 남한산성 마을 형성의 기원이 된다(조병로, 1999).

2.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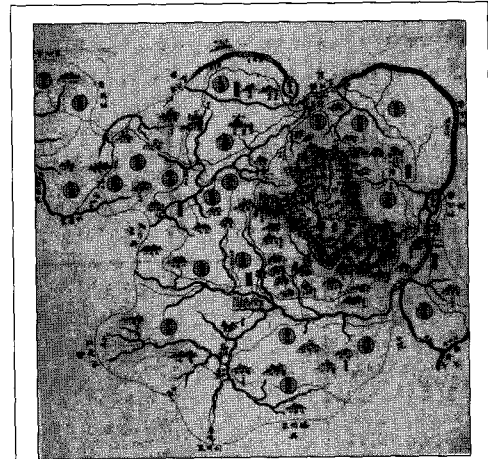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남한산성 마을 경관의 원형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의 연구 상황에서는 완벽히 밝혀내기가 수월치 않겠으나 철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조선조의 고지도의 분석, 총독부 소장의 유리 원판 사진의 판독 등을 통하여 원형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복원된 남한행궁의 경우 일부 보존되었던 행궁터의 주춧돌 등을 기초로 하고 시굴조사와 함께 일제시대의 유리 원판 사진 등을 토대로 상궐 및 그 주변의 부속 건물을 추정하여 복원한 바 있다(경기도, 2002).

1) 원형 경관의 추정

현재 남아있는 남한산성이 표현된 고지도로서는 규장각 소장의 고종대 군현지도, 해동지도 광주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남한산성도, 영남대 소장의 남한산성도가 있으며, 그 밖에 영조대의 광주군고도, 18C 해동지도 광주부 등이 있다. 지도에 의한 분석은 각 지도의 상호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규장각 소장의 고종대 군현지도(그림 1), 영남대 소장의 남한산성도(그림 2)를 제외하고는 그 표현이 간략하여 산성마을의 경관을 파악하기 위한 세밀한 자료로는 부적합하다.

규장각 소장의 군현지도는 신미양요 직후인 1872년 고종대에 전국의 군현지도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된 지도로서 광주부 행정구역의 모습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성마을 내부는 도로 및 물길의 표시와 함께 행궁을 비롯해 승렬전(개칭 1795년), 침과정(명명 1751년), 인화관, 이아(1786년)를 비롯해 창고, 사찰 등이 표기되어 있는 등 주요 건물의 위치나 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간략하여 원형경관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영남대 소장의 지도는 가로의 위치 뿐만 아니라 각 전각의 건축적 묘사 또한 뛰어나 산성마을의



a: 광주부 지역도



b: 남한산성 권역(확대)

그림 1. 규장각 소장 군현지도

경관파악은 물론 건축사적 연구 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세밀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각 지도마다 만들어진 시기 등을 바탕으로 하고 문헌상의 남한산성 축조연대 등을 비교하여 상호분석하며, 각 지도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불분명한 연대를 추정하고 산성마을의 원형경관과 구조변화를 추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산성 내부의 표현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기된 영남대 소장의 지도에 나타난 내용들을 남한산성의 축조연대와 비교하여 산성마을의 원형경관을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1) 마을 및 도로



그림 2. 영남대 소장 남한산성도

주요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분포 상태가 표현되어 있다. 도로는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도로 위계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주요 도로는 명확히 표현되었다. 주산과 주요 건물도 크고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2) 건물 및 시설

행궁은 상궐, 하궐이 각각 상객사, 하객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행궁(상객사) 북측면에 재덕당(1688년)으로 추정되는 전각이 표현되어 있다. 좌전(1711년)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온조대왕의 사당인 승열전은 은왕묘(1638년)라 표현되어 있고 사직단(1735년)과 우실(1711년)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남한산성의 주요 건물인 현절사는 위치는 다르나 명칭의 의미가 비슷한 삼신사우(三臣社宇)가 표현되어 있다. 그 외 행궁 남측에 관아시설(향청, 관청, 이아, 경창, 영서창)이 표현되어 있으며, 침과정의 전신으로 추정되는 전각이 현재의 침과정 위치에 중영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연병관이 남향하여 그려져 있으며, 좌우의 깃발로 군사적 위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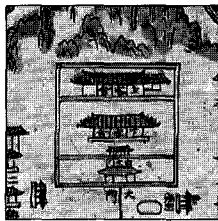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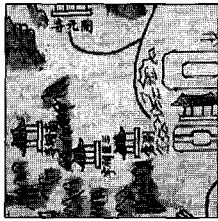
표현하였으며 현재 남한산초등학교 위치에 영고(營庫)가 담장으로 둘러져 표현되어 있다. 그 외 성곽시설로서 5장대와 4대문, 국청사를 비롯한 사찰이 그려져 있으며, 지수당 앞뒤의 연못도 그 형태 등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등 당시 남한산성의 마을 경관을 형상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표기되어 있다.

(3) 연대 추정

지금까지 영남대 소장의 남한산성도는 18세기 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광주군, 2000). 그러나 건물의 축조연대와 위치 및 명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지도는 더 이전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지도를 확대하여 분석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궁에는 1688년에 세워진 재덕당이 그려져 있고, 현절사의 경우도 1693년 사액되기 전의 명칭인 '삼신사우'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88년 이후 169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우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봉성은 1693년에 축조되어졌기 때문에 1693년 이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1693년이나 그 직후에 그려졌을 것으로 보이나 '삼신사우'의 표기를 고려할 때 현절사가 사액되던 1693년 그 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도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표 1. 표기 건축물의 축조연대 분석

구분	지도표기	축조연대 분석
행궁		행궁의 상궐, 하궐이 각각 상객사, 하객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상객사 북측(우측)에 재덕당(1688년)으로 추정되는 전각이 표현되어 있으나, 행궁담장 북측(우측)에 좌전(1711년)은 표기되어 있지 않음
삼신사우		그림 좌측의 남단사 동측(우측)에 현절사의 전신인 '삼신사우'가 표기되어 있는데, 현절사는 1693년 사액 때 건너편동측 사면의 현 위치로 이전되었음

만일 이 지도의 제작연대가 1693년으로 추정된다면 남한산성 마을 형성의 기원이 된 인조 5년(1627년)과 비교할 때 불과 60여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산성마을 형성 초기의 마을구조와 마을경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표기된 전각들의 규모 및 개원사와 지수당 지붕의 용마루가 표현되는 등 건축적 묘사 또한 뛰어나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원형 경관의 해석

남한산성의 중심건물인 행궁은 인조 2년(1624년) 산성을 수축할 때 함께 지어졌다. 숙종 37년(1711년)에는 종묘를 봉안기 위해 좌전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실을 비롯하여 좌승당, 일장각, 수어청, 제승헌 등을 비롯한 관아건물 및 군사기관, 종각 등이 들어섰던 점을 미루어 보아 도성의 공간조성 원리를 충실하게 모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형적 차이가 있어 절대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서북편에 치우친 행궁의 편심 배치, 남문과 북문을 잇는 선을 그어 중심가로로 삼고, 동문에서 종각을 잇는 가로와 행궁으로 향하는 대로를 연결케 한 도상이 한양 도성과 매우 유사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한산성 마을은 단순히 읍치의 공간구조가 아닌 왕도의 공간적 구조가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산성 마을경관은 독특하게 서쪽의 산인 청량산을 진산으로 하고 전체의 지세가 동쪽으로 열려 있으나 산성 내부 공간은 동향한 행궁을 머리로 하여 읍성의 전형적인 '丁' 자형의 가로 체계를 보이고 있다. 경관적 구조는 풍수지리에서와 같은 비대칭의 '유기적, 동적' 공간구조와 경관요소 간의 '중층적 관계성'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양과 같이 건축 입면적 특징을 나타내 보이기 보다는 유교적 엄격성에 의한 절제성을 견지하면서 내적 수양주의 체험을 중요시 하는 내향적 공간배치 특성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상섭, 2000).

3) 원형 경관 복원의 전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지도에 의한 원형 경관의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 고지도가 거리 감각을 갖고 그려지기 보다는 주위환경을 인식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린 사람의 당시 환경에 대한 공간 인식이 진솔하



그림 3. 1910년대 남한산성 마을 주변의 지형도(1/50,000)

게 담길 순 있겠지만 마을 경관의 실제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마을경관의 현시적 모습은 전술한 원형경관에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마을경관 전체를 그려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의 변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성마을의 현시적 마을경관의 판단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산성마을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강선중, 1990; 김한배, 1992; 신상섭, 1999)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이나 도시들은 부분적으로 정비되거나 추가 보완이 있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큰 변화없이 경관 원형이 개항기 까지 이어져 왔음을 볼 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산성마을 경관이 원형경관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말 무렵의 남한산성 마을의 규모는 “광주부 읍지”(1842~1843년)에 나타난 산성마을의 호구수를 보면 1,088호에 인구는 4,047(남: 2,100, 여: 1,947)인을 보이고 있으며(조병로, 1999), 1910년대에 제작된 지형도(그림 3) 및 조선총독부 유리 원판 사진(그림 4)을 통해 당시 산성마을의 경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정시대 1912년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보면 고지도상에 표기된 간선도로 및 마을의 분포상태와 아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 원형 확인을 위해선 고지도상의 필지분할선 및 지목 등을 조사하고 시굴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건축물 및 경관의 구조와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



그림 4. 1900년대 초의 남한산성 마을의 전경

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 하에서의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원보다는 터의 확인과 보존을 우선하며 복원의 경우라도 철저한 고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원형의 복원이나 원형성 해석만으로는 복원의 한계를 갖게 된다. 즉, 특정 유적의 원형 복원이나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보장되면서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제 환경 요소와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마을경관의 복원방안

1. 경관변화와 현황

남한산성의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1917년 광주군청이 경안리(현재의 광주 시내)로 이전되면서 기존의 도시적 세가 약화되었고 해방 후에는 많은 산성 주민이 대도시역으로 이주함에 따라(2005년 거주인구 130가구 320명) 자체적인 개발압력에 의한 전통경관 및 원형이 크게 파괴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었다. 196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전술한 20세기 초기의 동선체계 및 마을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 경관 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도로의 확폭과 직선화에 따른 전통 간선도로



그림 5. 1966년 촬영한 남한산성 항공사진



그림 6. 로타리 주변의 주차장과 훼손된 마을경관

의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궁과 동문을 잇는 주 도로와 남문과 북문간의 주 도로가 만나던 마을의 중심부의 '丁'자형의 길은 원형의 로타리로 변했으며, 주변에는 대형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공간규모에 있어서도 이질감을 초래하고 있다. 가옥들은 음식점업을 위하여 대형화되고 독립적으로 세워짐에 따라 채와 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마을의 향토성 또한 크게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차면적의 과다 및 대형화는 경관파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고 각종의 산성 이벤트를 위한 공간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주차광장의 확보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이로 인한 마을 경관의 파괴는 심각하다. 취락지구내에서의 전체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소

표 2. 산성내의 공용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면적(m ²)	주차면수(면)
남문주차장	5,971	119
로터리주차장	2,721	57
관리사무소앞 주차장	3,565	76
동문주차장	500	24
중앙주차장	10,620	200
합계	23,377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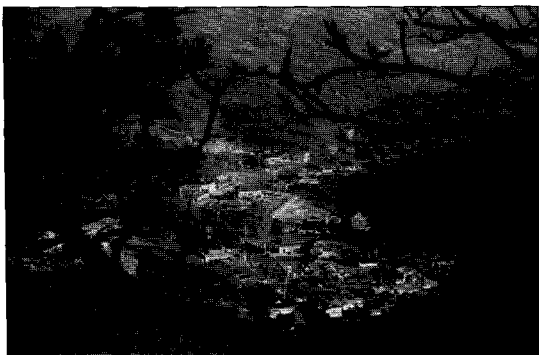


그림 7. 중앙주차장 전경

에 23,377m²(476대)이며, 전체 취락지구의 면적 118,000m²의 19.8%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림 7에서 보이는 중앙주차장은 남한산성의 중심공간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 건축물과의 스케일 면에서의 부조화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매우 불량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2. 마을경관의 복원방향

남한산성의 마을경관 복원은 장소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복원의 우선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환경으로서의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전통마을이 갖는 문화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인 마을복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문화재의 복원

남한산성에는 사적 57호로 지정된 성곽 및 그 부속

표 3. 남한산성의 지정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년월일	
국가 지정	사적	제57호	성곽	1963. 1. 21.
	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제2호		승열전	1972. 5. 4.	
제3호		청량당	1972. 5. 4.	
제4호		현절사	1972. 5. 4.	
제5호		침괘정	1972. 5. 4.	
제6호		연무관	1972. 5. 4.	
정	문화재 자료	제14호	지수당	1983. 9. 19.
	제15호	장경사	1983. 9. 19.	
기념물	제111호	망월사지	1988. 12. 2.	
	제119호	개원사지	1988. 12. 29.	
	제164호	행궁지	1997. 5. 27.	

시설을 비롯해 은조대왕의 사당인 승열전을 비롯해 삼학사를 모신 현절사 등 도지정의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기념물 등이 있다(표 3). 이외에도 정자터나 우물터, 바위, 노거수 등이 생활공간과 연계되어 있으며, 복원과 수선이 요구되는 건물지 등이 많다. 현재는 지정 유형문화재에 가려져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고지도에 의한 원형경관의 분석 결과, 지정문화재 이외 성곽과 관련하여 장대, 외성과 웅성 및 압문 등이 있으며, 주요 전각, 창고, 누정, 종묘시설 및 사찰 등이 있다. 현재 지정문화재도 보존, 정비 등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 중 고지도에 나타난 시설들 가운데 복원정비가 우선 요구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복원 방향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그 외 나머지 문화재들도 개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 건축적인 보수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문화재의 복원은 읍성이라는 원형 이해를 기본으로 마을구성을 결정짓는 가로망과 각종의 건축물 그리고 이들의 좌향, 규모, 경계표시 등이 포함되는 물리적

표 4. 문화재의 복원

구분	시설명	현황	복원·정비방향
장대 관련	· 동, 서, 남, 북 4장대 및 봉암성의 외동 장대 등 5장대	· 서장대(수어장대)만이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남장대가 복원 중에 있으나 나머지는 터만 남아 있음	· 터의 정비
창고	· 수창, 성기고, 영고, 북창, 서창, 동창, 남창, 별창, 별고 등	· 사대문 주위와 도로 주변이나 관아 주변에 위치	· 지표조사 및 터의 보존
주요 전각	· 지수당	· 지수당 주변으로 보이는 2~4개의 연못	· 을축년 대홍수시 원형훼손됨-원형복원
	· 현절사	· 원형 훼손 및 입구부의 인식성 결여	· 수선 및 공간적 정비계획
중요시설	· 연무관	· 원형 훼손 및 도로에 의해 공간 단절	· 전면의 장터 복원하고 공간적 정비
	· 좌전	· 복원완료	· 복원되는 행궁과 연계성 강화
	· 사직단	· 산성내 기반시설 공사로 훼손	· 급수시설 이전하고 터의 복원
사찰	· 승혈전	· 은조왕 제사사당으로 함각지붕으로 복원	· 맞배지붕으로 복원하고 주변 공간화 정비
	· 옥정사, 남단사, 한홍사, 천주사, 동림사	· 부근에 대형 초석 노출 및 돌멩이들 보존	· 터의 보존 정비 및 공간 활용

표 5. 남한산성 마을의 경관상 복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적용기법

구분	공간구성과 환경설계 구현 체계	남한산성 마을 현황	적용기법
입지	· 주산과 조산 축선상의 안온한 분지, 완경사형 길처(吉處) · 지리+생리+인심+산수를 통합한 복거(卜居) · 장풍득수+배산입수	· 주변 지형지세의 비고려 · 울창한 배후 소나무림 · 성곽으로 에워싸인 폐쇄성	·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무육 병충해 방제 관리
토지 이용과 동선	· 주거지+경작지+배후지, 뒷마을+아랫마을, 마을길+물길이 결합된 공간 경영 · 동과 정이 교직된 여동공간의 연속적인 기승전결(시작과 맺음) 체계 · 대소중가, 소작농, 민가 등 주중첩의 위계가 반영된 서열적 토지이용 · 견제와 균형적 토지이용, 수용력이 반영된 동선체계와 나뭇가지형 마을길	· 중앙도타리 · 자동차도로 확폭·직선화	· 주축선(丁자형 도로)의 회복 · 옛길·마을 안길의 복원·재현 · 비대칭적 구성에 의한 인도와 암시
주거 형태	· 자연지형과 물길, 마을길, 경관 등을 고려한 마을과 주택 · 기와집과 초가집의 위계적 구성 · 자연에 순응하는 주거 향과 조망, 내·외부공간을 결합시킨 주거형태	· 군집화된 취락군 · 이질적 공간 스케일	· 필지의 분화 · 주중첩의 가구 배치 · 전통적 마을의 군집미와 연속성 확보 · 정과 동이 직교하는 동적 균형 유지
영역성	· 마을 안팎의 영역표시 지표물(산수지리, 마을숲, 우물, 종가, 누정 등) · 살림집, 신앙의례시설, 강학공간, 생활문화 편의시설로 분화된 영역 · 어귀길, 동구, 갈림길과 안길, 셋길과 골목길로 분절되는 울동적인 마을길	· 문화재나 건물터의 단절 · 고밀화	· 노거수의 보호 및 거점 생활공간과 연계 · 연무관 전정광장의 재현
경관	· 내정(內庭)+외정(外庭), 내원(內園)+외원(外園), 내원(內苑)+외원(外苑), 진경(眞景)+상징경(象徵景)+인조경(人造景)이 결합된 전 경관 · 환경 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과 경관관찰점 경영 · 외부로 바라보는 개방적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 지표경관요소의 설정, 8경과 16경 등 승경지의 광역경관, 향토경관 경영	· 문화유산의 개별적·소극적 보존 · 산성 연속경관의 단절 · 산성 주변 건축물 고도화 · 미질적 스카이라인 형성 · 남문으로의 터널조성에 따른 은폐와 암시 해제 · 대규모 건축에 의한 조망권 제한	· 단위 문화재로서 연계 복원·보존 · 정자터, 우물터, 바위, 노거수의 발굴 보존·재생관리 · 행궁로 주변 녹지공간 확충 · 남한산성 팔경 만들기
생태	· 자연녹지 속에 삶터가 접속된 생태네트워크 구축, 생태적 수용력 · 생물 서식공간, 환경림, 수(水)·석(石)·목(木)이 어우러진 생태경관+생태마을 · 자연에너지의 활용, 미기후의 고려, 자연재활용 등 낮은 엔트로피 체계구축	· 반딧불이와 가재 서식	· 고지도에 나타난 물길의 재생 · 고지도에 나타난 읍수(마을숲) 복원 · 다슬기 등 반딧불 먹이원 재생 · 산성천의 자연천화 및 수질 보존 관리

요소와 축조 배경과 상징적 요소, 그리고 이들 요소들이 결합, 형성되는 공간 특성들이 함께 언급되는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장차 전통마을경관 복원과 연계된 공간적 복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 전통마을경관의 복원

전통마을로서의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한 착안점을 낙안읍성과 외암마을 등의 공간구성에 적용된 설계원칙에 관한 연구(신상섭, 2000)에서 제시된 설계방법론에 의거하여 남한산성 마을과 관련성 깊은 내용을 재정립하여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경관성 복원을 위한 적용가능한 설계전략 또는 적용기법을 정리해 보았다. 남한산성 마을은 이미 주거시설 대부분이 훼손되고 식당 개조 등으로 변형되어 낙안읍성이나 외암마을과는 차이가 있으나 전통마을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전략과 적용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경관의 복원을 위한 시설계획으로서 옛길복원 및 테마공간 조성, 자연자원의 활용

등을 구상해 보았다.

(1) 옛길 복원 및 테마공간의 조성

남한산성 옛길을 이용하여 산성마을의 상징적 의미와 공간적 기능성을 살린 마을경관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우선 행궁에서부터 동문으로 이어지면서 산성마을 중심을 동서축 방향으로 가르는 자동차 길은 남한산성의 상징문화의 길로 설정하고 옛거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거리연출을 하고 전통마을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성천변의 옛길은 여유와 정감이 있는 민속길로 설정하여 하천과 연계된 이야기가 있는 낭만적인 길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자원자원의 활용 및 옛길 복원과 테마공간의 조성 등은 표 5에서 제시한 남한산성 마을의 경관성 복원을 위한 기본전략과 적용기법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산성의 옛길을 복원하고 테마공간에 의한 공간구성 방안을 도식해 보았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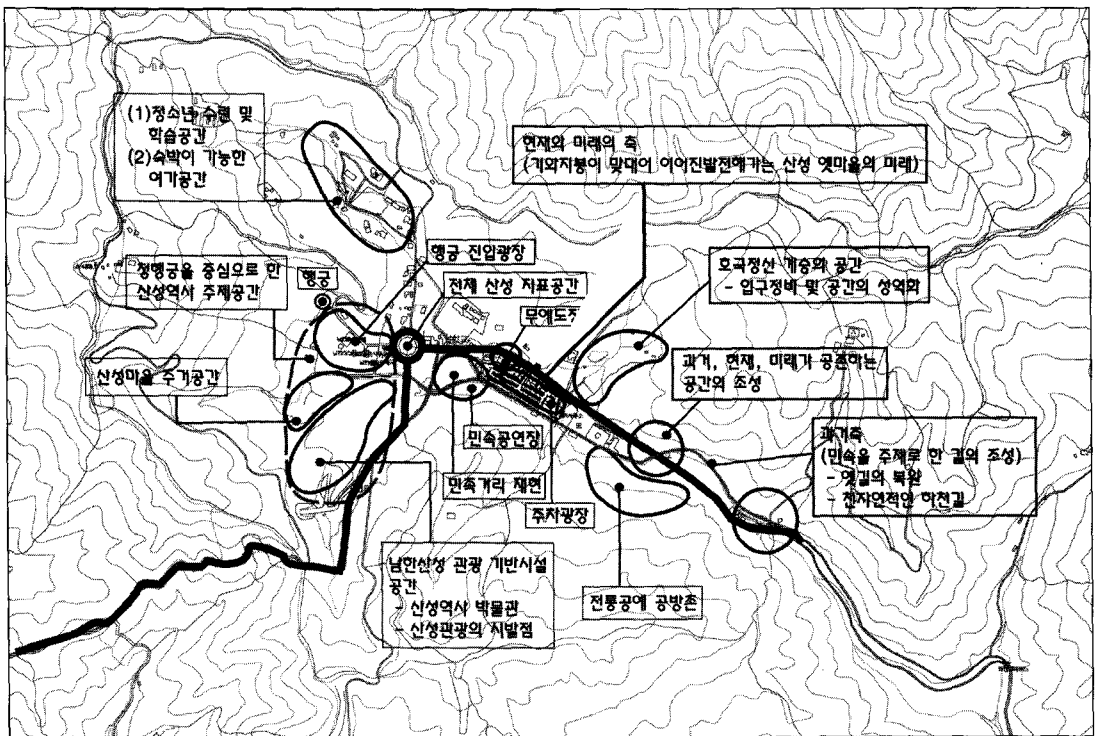


그림 8. 남한산성 옛길 복원 및 테마공간 구성

(2) 자연자원의 활용

남한산성에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20만평의 소나무림이 있을 뿐 아니라 반딧불이와 가재가 서식하고 있는 등 청정한 자연환경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성 밖의 주변 시가지보다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차 뿐만 아니라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자연 지형적 특성이 역사자원과 잘 결합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마을 중양을 따라 흐르는 산성천의 복원 및 야생화 보존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요구된다.

N. 결론

본 연구는 남한산성 마을의 경관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을 추론하고 국내 읍성 또는 산성마을 관련 공간 및 경관구성원리를 적용하여 마을경관 복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남한산성 마을경관의 원형 파악은 산성마을이 형성된 인조 5년(1627년) 이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의 공간특성이나 경관특성을 알 수 있는 시기는 영남대 소장의 고지도 분석 결과, 마을형성 시기보다 약 60여년이 늦은 1693년 경의 산성마을 경관으로 추론되었으며 남한산성의 원형경관으로 추정기로 하였다.

남한산성 마을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해선 경관훼손의 주요인인 간선도로 및 대형 주차장의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마을경관 복원 방안으로서는 문화재의 복원, 옛길 복원과 테마공간의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전통마을의 토지이용과동선, 주거형태, 영역

성, 경관 및 생태적 요소의 환경설계 구현 체계에 의한 적용기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관복원을 위해서는 용도지구의 운영, 건축조례의 운영개선, 토지이용상의 생활공간의 수용 등 현실적인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산성마을의 안과 밖을 연계한 종합적인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 1.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은 남한산성 축성 370주년을 기념해 성남문화원 주관으로 1996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제학술회의로 진행되었다. 小田富士雄 교수(후쿠호카대), 陣瀧 교수(국 요녕성사회과학원), 張杰 교수(요녕대), 孫玉良 교수(길림사회과학원)를 비롯해 백남옥 교수(동서울대), 조병로 교수(경기대), 전보삼 교수(신구대), 박상규 교수(경원대), 차용걸 교수(충북대) 등이 남한산성의 수축과 역사적 의미, 산성연구의 동향 및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등 9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인용문헌

1. 강선중(1990) 마을의 구성. Plus 9002 149: 148-151.
2. 경기도(2000)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연구 보고서.
3. 경기도(2002) 남한행궁(상월) 중건공사 보고서.
4. 경원대학교(1998) 남한산성 디자인을 위한 이용자 특성 연구.
5. 김한배(1992)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 서울: 도서출판 조경.
6. 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1999)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조사 보고서.
7. 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2000)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8. 박찬용, 김한배(2003) 산운마을의 역사문화경관 복원 및 정비. 한국정원학회지 21(4): 47-61.
9. 신상섭(1999)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환경설계원칙(하). 국토연구원 국토 10: 60-65.
10. 신상섭(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1): 20-31.
11. 조병로(1999)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2). 성남문화연구원 성남문화원주 5: 25-71.

원 고 접 수: 2006년 1월 1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7년 2월 20일
 4 인 의 명 심사 필